

출장보고서

**UNESCAP 주최 "Ministerial Conference
on Transport" 참가 및 발표**

2012. 4. 6

김 정 욱

KDI 공공투자관리센터

목 차

1. 출장 개요	1
2. 출장 일정	1
3. 출장 내용	1

1. 출장 개요

배경 및 목적

가. UNESCAP에서는 역내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협력 강화를 위해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함.

나. 교통 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한국의 민간투자경험을 발표하여 주기를 요청함.

출장기간 : 2011년 3월 12일(월) ~ 3월 15일(목)

출 장 자 : 김정욱 부연구위원

2. 출장 일정

출장 기간	활 동 사 항
3월 12일	서울 출발, 태국 방콕 도착
3월 13일 ~ 3월 14일	회의 참가, 태국 공무원 면담
3월 14일 ~ 3월 15일	태국 방콕 출발, 서울 도착

3. 회의 주요 내용

인프라 시설에 대한 자원은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으나,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가용한 자원을 상회하고 있음.

○ 이에 역내 가용 자원을 통합하여 인프라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

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타 부문에의 투자에 비해 특수성이 현저함.

○ 규모의 경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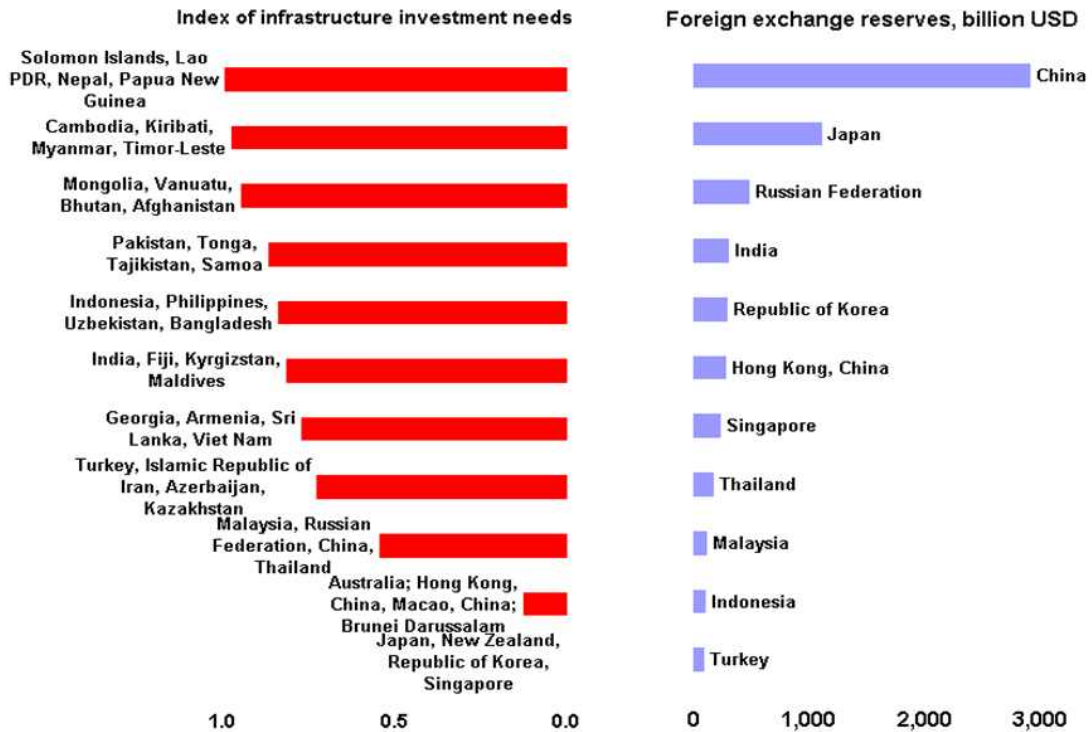
- 특히 대규모의 교통 인프라에서 규모의 경제가 큰 것으로 제시
- 네트워크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로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함.
- 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임
- 화물 선적, 연결관 등 한계 용량에 근접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함.

□ 인프라에 대한 재원은 다양하게 조달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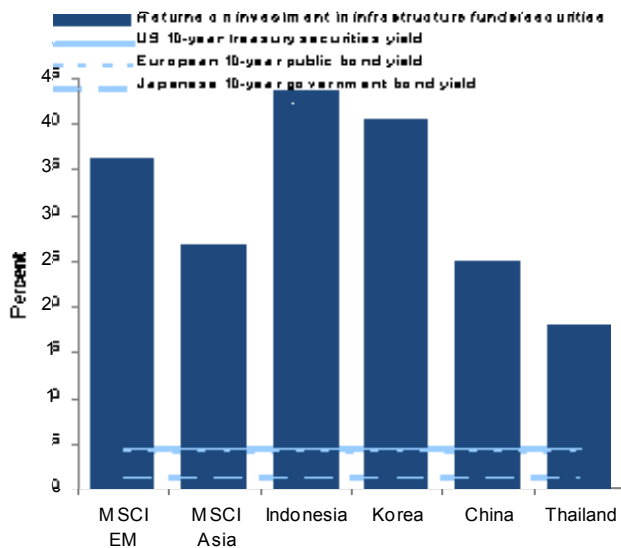
- 정부 예산
 - 사회적 이익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사용이 바람직함.
 - 다만 많은 국가의 경우 정부 예산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.
-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 기구
 - 역내 국제기구의 역할은 다소 낮은 수준임.
 - 예컨대 ADB는 60억 USD를 차관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EIB의 10%에 그치고 있으며 EBRD의 차관보다 낮은 수준임.
- 금융 시장에서의 조달
 - 신용 스프레드가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음.
 - 채권시장의 미발달이 장애로 작용
 - 인프라 자산의 채권화(유동화)와 상장 등이 매우 제한적임.
 - 아태지역의 인프라 관련 채권은 총 규모의 3-4% 수준에 그침.
- 민간투자사업
 -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확충에 기여
 - Value for Money의 확보가 중요함.

□ 재원의 수급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.

-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요원한 상태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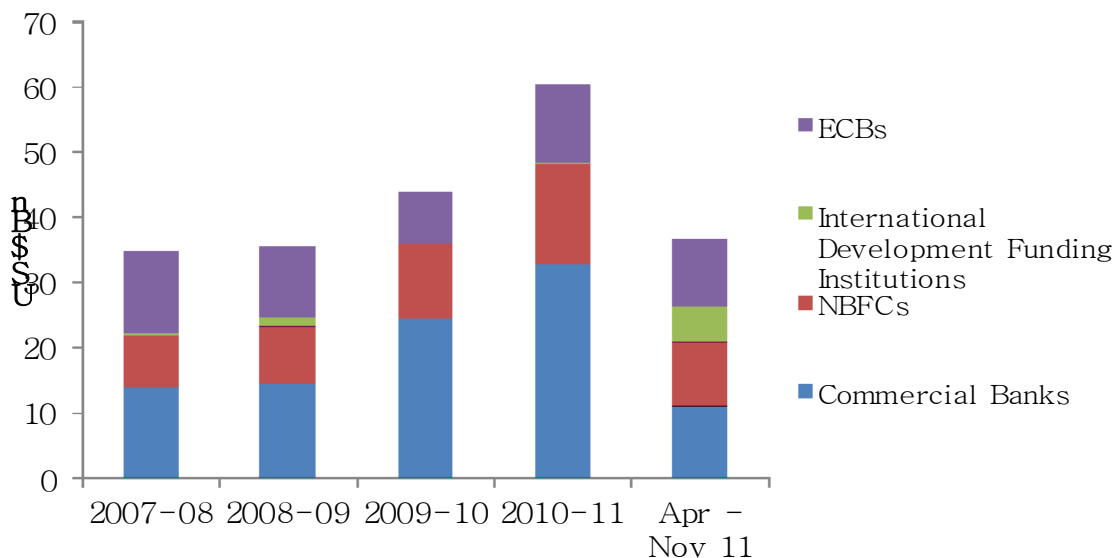
- 인프라 펀드 및 채권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인프라 시설 투자의 재원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함.



- 투자 재원의 결여는 과소투자를 야기하여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빈곤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.

- 이에 아태 역내 외환보유와 금융자본 등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 수익률(financial return)과 경제적 수익률(economic return)이 상이할 수 있으며, Viability Gap Funding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제고할 수 있음.
- 하지만 Viability Gap Funding이 공적인 부문에서 투입되는 경우 개별 사업과 계약의 설계 및 강제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함.
- 인도의 경우 인프라 확충의 재원 중 차입은 상업 은행 및 비은행권 금융회사에서 대부분 조달되었음.



- 은행 예금은 인프라 관련 차입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은행 차입은 중계수수료가 높은 수준이며 자산과 부채 간의 비합치로 인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.
- 따라서 채권시장이 인프라 재원 조달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 - 인도 채권시장은 GDP의 3%에 그치고 있어 다소 미발달한 상황임.
 - 한편 말레이시아는 해당 비율이 43%, 홍콩은 35%에 달하고 있음.
- ASEAN Infrastructure Fund가 제안되어 운용될 예정임.
- 2009년 ASEAN 재무장관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, 2011년 말레이시

아에 사무소를 두고 운용될 것에 합의함.

- ASEAN 9개국에 335.2 Million USD를 출자하고, ADB가 150 Million USD를 출자함.
- 2016년까지 440 Million USD를 차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, 민간투자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함.